

남구 의료폐기장 건축허가 왜 두달만에 입장 바꿨을까

구청 당초 "판단 어렵다"서 "결정 대상 아니다" 변경 의문

광주시 남구 양과동 개발제한구역 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축허가를 놓고 적절성 논란(광주일보 8월 16일 6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남구가 해당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불과 2개월 사이 다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 양과동 개발제한구역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남구는 지난 2009년 8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당시 영산강청은 사업승인 전 해당 시설이 들어설 부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남구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등 총 10개 법령에 사업이 위반되는지 여부를

물은 상대였다.

이에 남구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상 세부기준에 부합해야만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건축)행위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영산강청에 공문으로 전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축허가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남구는 "명확한 의견을 달라"는 영산강청의 재요청에 불과 2개월 뒤인 2009년 10월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 이하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일반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특히 남구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 첫 법령 검토결과 시점은 사업주의 건축허가 신청서가 남구에 접

수된 이후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결론지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갑작스런 남구의 입장 선화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영산강청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문제 없다'는 남구의 입장을 토대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을 최종 승인해준 것으로 나타나 법령 검토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환경청이 처음 보내온 공문만으로는 관계법령 저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후 사업승인과 건축허가 신청시점을 확인한 뒤 결론을 내려준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전남교육공공체 인권조례 초안 의견수렴 앞두고 학생 집회 허용 싸고 논란일듯

전남도교육청이 교육공공체 인권조례 초안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선 가운데 학생들에 대한 집회자유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도교육공공체 인권조례제정자문위가 마련한 '교육공공체 인권조례' 초안(제12조·표현의 자유 조항)에 '학생은 평화로운 집회 및 표현을 자유를 가지며, 학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수록돼 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 '학생들이 미성숙한 존재인 만큼, 보편적 인권이

라는 명분으로 집회의 자유를 대거 허용하면 학내 분쟁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확정된 광주학생인권조례안에도 학생들에게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은 없다.

오는 24일~25일 공청회를 거치는 교육공공체 인권조례초안은 총 7장 69조로 구성됐으며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등을 명문화했다. 학생의 권리도 학습권과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자치활동 보장, 정책결정과 학칙 제·개정 참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별초 한창 추석(9월 12일)을 앞두고 21일 광주시 북구 수곡동 망월공원 원묘지에서 묘지 관리인이 별초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7분 해질 19시 14분 달맞이 23시 42분 달지 13시 36분

가을이 성큼

고기압 영향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다.

구분	구름량	기온
광주	구름많음	21/28℃
목포	흐림	20/26℃
여수	흐림	21/25℃
나주	구름많음	20/28℃
완도	흐림	20/24℃
구례	구름많음	20/25℃
강진	흐림	21/25℃
해남	흐림	20/25℃
장흥	흐림	20/25℃
순천	구름많음	20/28℃
영광	구름많음	20/28℃
진도	흐림	20/25℃
전주	구름많음	19/25℃
군산	구름많음	20/28℃
남원	구름많음	18/27℃
홍산도	흐림	19/15℃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구분	종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1.0~2.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1.5~2.5m	☁️	🚫	😞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3(화)	24(수)	25(목)	26(금)	27(토)	28(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20/28	22/28	23/30	23/30	24/30	24/29

전남대 떠나는 교수 늘고있다

3년간 16명 수도권 대학으로 옮겨

전남대를 떠나는 교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1일 전남대에 따르면 2009년 4명에 이어 지난해 7명, 올해 들어서 벌써 5명이 떠나는 등 최근 3년간 이직 교수가 16명에 달한다.

대다수 교수가 서울 등 수도권 국립 및 사립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이들 교수 상당수가 공대, 자

연대, 의대 등으로 비교적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젊고 연구 역량이 뛰어난 경우가 많다는 것.

이들은 고액 연봉에다 직급 상향 등 이른바 스카우트 이직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대학 측 설명이다.

이들은 또 상당수가 수도권 출신으로 자녀 교육 문제, 서울에 뒤편어지는 열악한 연구환경 등을 이유로 이

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에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전남대로 온 교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상당수 교직원과 학생들은 일부 수도권 출신 교수들이 국립대 교수로서의 스펙만을 쌓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며 강한 불만과 상실감을 표출했다.

전남대 A교수는 "교수에 채용되기 위해 오랜 세월동안 연구하고 노력하는 이들이 수도 없이 많다"면서 "채용 전에 지방의 여건을 뻔히 알았으면서도 교수로서 더 나은 조건만을 쫓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서운하고 씁쓸하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초가을 날씨

남해안 일부지역 비

광주지방기상청은 22일 광주와 전남·전북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해안 일부 지역에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고 21일 예보했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21도, 낮 최고기온은 24도~29도 분포를 보일 것이다. 이는 평년기온보다 2도 가량 낮은 수치다.

기상청은 23~24일 광주·전남·북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초가을 같은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겠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더위가 한풀 꺾인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한 가을이 찾아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SINCE 1982

“추석 명절맞이 보청기 무료점검 안내”

계절 변화에 따라 보청기 A/S 받으세요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일시 : 2011년 9월1일 ~ 9월2일 (오전10시~오후6시)
- * 장소 : 국제보청기 본점 (광주시 동구 서석동81-1 동구청우거리)
- * 접수 : 본점 및 각지사 (대기시간 단축을 위하여 전화 접수도 받습니다)

본점 062-227-9940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충장점 062-227-9970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요리

눈,코,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효소 월드덕 짬 한방오리구이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술손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점심특선

봉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 광주1등맛집 • 다담회 한국맛집 •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 광주은행 소호명가

2011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끊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늘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보조 50% 확정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사업이란?

일반주택,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보급정책 이용을 확대하여 관련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태양광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며, 기술발전을 통한 중장기 수출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준용량(주택용)용량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 요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0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보급 상담문의 (주)동성애어텍 ☎062-512-1180 / H,P 011-659-7001